

국가별 동향



중국

브라질산 가금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종료



브라질 개발 산업 무역 서비스부(이하 MDIC)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9년 이후 많은 브라질 가금류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 조치를 갱신하지 않았다. 최대 34.2%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이 법안은 2월 17일에 종료되었고, MDIC는 이러한 변화가 지난해 브라질 정부가 다양한 포럼과 양자 협력 메

커니즘에서 중국 관료들과 협력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반덤핑 관세는 원산지 국가의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가금류 수출국이고 중국은 최대 고객이다. 지난해 브라질의 중국으로의 가금류 수출량은 679,000톤에 달하며 그 가치는 미화 19억 달러 이상이다. Rosa는 반덤핑 관세가 종료되면 중국 시장에서 브라질의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macaonews]



이스라엘

전쟁과 노동력 부족으로 타격 입은 가금류 산업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사 작전의 여파와 뉴캐슬 질병 발병의 여파로 인해 가금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현지 간행물인 theMarker가 보도했다. 북부와 남부 지역의 일부 가금류 사육장은 전쟁으로 인해 폐쇄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국경에서 적대 행위가 발생한 이후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이스라엘을 떠나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

다. 또한, 2023년 4분기 동안 이스라엘은 일련의 뉴캐슬병 발병으로 인해 1,6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잃었다. 전염병은 전국의 가금류 농장으로 확산되어 업계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에 따른 부족한 부

분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도축장은 주 6일 근무로 전환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보안 상황이 개선되고 전염병의 확산이 멈추기 전까지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본다. [Poultry world]



## 캐나다

### 도심 내 닭 사육 공식 승인



도심 내 농업으로의 중요한 전환을 나타내는 움직임으로 캐나다의 Creston 의회는 뒷마당 닭 사육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Creston 주민들은 적절한 허가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최대 6마리의 암탉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이 계획은 지속 가능한 지역 식품 공급원을 도시 환경에 통합하려는 광범위한 운동의 일부로 보인다. Creston 에서 보다 지속 가능

한 도시 생활 관행을 향한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에게 식량 공급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계획을 고려하는 다른 도시에도 선례가 된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주의를 향한 더 넓은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식량 생산과의 관계를 재구상하는 데 있어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BNN]



## 사우디아라비아

### 가금류 산업 활성화 및 투자 기회 제공을 위한 행사 기획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금류 산업을 육성하고 현지 투자와 글로벌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자 “MIDDLE EAST POULTRY EXPO”를 다가오는 5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환경, 수자원 및 농업부는 가금류 산업 혁명을 목표로 하는 중추적인 이 행사의 후원을 발표했다. 이 행사는 지역 투자와 글로벌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강력한 가금류 부문 개발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촉진하는 것을 추구한다. 가금류 업계의 현지 투자자, 공급업체, 국제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에서는 수많은 투자 기회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가금류 부문의 혁신과 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자국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BNN] **양계**